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일대일로 빛더미’ 라오스 물가 급등에 생활고 극심



라오스에서 물가가 연간 20% 이상 치솟으면서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참여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탓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라오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23%에서 지난해 31%로 치솟았으며, 올해도 25%로 고공 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 물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치솟기 시작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고삐가 풀렸다.

특히 쌀, 설탕, 기름, 닭고기 같은 생활필수품 물가가 지난해 약 배로 오르면서 일반 가계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생활고가 한층 악화하면서 라오스 5세 미만 어린이 거의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발육이 멈췄다고 아시아개발은행은 전했다. 이런 영양실조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오스 경제가 이같이 어려워진 배경으로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로 지게 된 대규모 부채가 꼽힌다.

라오스 정부는 약 60억 달러(약 8조4천억 원) 규모의 중국-라오스 철도와 수력발전 댐 건설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했다. 그 결과 라오스 국가채무는 130억 달러(약 18조 원)를 돌파, 국내총생산(GDP)의 108%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이 같은 국가채무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국가채무를 상환하느라 외화가 대량 유출되면서 라오스 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한층 심해지는 악순환에 라오스가 빠졌다는 것이다. 라오스 정부가 지급하는 채무 이자 금액은 올해 총 17억 달러(약 2조4천억 원), 향후 3년간 연평균 13억 달러(약 1조8천억 원)에 이른다. 미 달러화 대비 킵화 가치는 지난 3년간 약 절반으로 추락했다.

국제기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포 린 응 이코노미스트는 “라오스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킵화 가치 하락으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 회복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당국은 최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긴축 재정을 펴고 있다. 이어 긴축 조치가 라오스 경제에 장기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를 늘리고 부채 구조 조정을 시도하라고 조언했다 (출처: 연합뉴스 종합).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미가 4:5)

하나님, 중국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계획하려던 라오스가 막대한 부채와 물가 상승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공산국가로서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나라가 가난한 마음으로 문을 낮춰 정치적 개방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병들게 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고 이 땅에 마음껏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의 돌보심과 통치가 라오스에 임하도록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가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며, 경제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위기에 회복의 길을 여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슈퍼태풍 ‘만이’, 필리핀 강타··한달새 6번째 태풍 피해

슈퍼태풍 ‘만이’가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필리핀이 한 달 동안 여섯 번째 태풍 피해를 봤다. 17일(현지시간) AP·AFP 등에 따르면 만이는 전날 밤 필리핀 동부 섬 카탄두아네스주에 상륙한 데 이어 북부 루손섬에 도착했다. 최대 순간 풍속 시속 240km의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만이로 인해 카탄두아네스주 등지의 수많은 주택과 학교 등 건물들이 부서져 폐허가 되는 등 피해를 봤다. 카탄두아네스주 재난 대응 당국자는 “비는 아주 적었지만, 바닷가 주택 근처에서 조수 해일이 7m 이상 치솟아 정말 무섭게 보였다”고 말했다. 또 태풍으로 수많은 전신주와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주 전역에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기상 당국은 만이가 향후 24시간 동안 루손섬의 마닐라 등지를 지나면서 약 2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부어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보했다. 필리핀에서는 통상 연간 20개가량의 태풍이 지나가곤 하지만, 이번처럼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의 태풍 피해를 보는 것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동남아가 세계에서 가장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서 태풍·폭염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예레미야애가 3:32-33,58)

하나님, 필리핀에 한 달 동안 여섯 번째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속히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생명이 위급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비롯된 이상 기후가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기로 체감하는 이때 모든 영혼이 주 앞에 가난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 오게 하소서. 인생으로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생명을 속량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 모두가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얻게 하옵소서.

▲ 유럽연합 “中 신장서 러시아 군사용 드론 생산”

유럽연합(EU)이 중국 신장에서 러시아군 군사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뉴시스가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전했다. EU 고위 관계자는 SCMP에 “정보원으로부터 중국 서부 신장자치구에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이 존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로 넘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EU 외무장관들은 18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관련 정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EU 측은 중국 내 드론 생산이 중앙정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소식통들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무기 원조 제공을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중국이 공작기계, 무기 기술, 위성사진, 반도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요한복음 10:10,12)

하나님, 공식적으로 전쟁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뒤에서는 무기를 공급하는 중국과 이를 이용해 분쟁을 멈추지 않는 러시아의 상황을 선하신 주께 의탁드립니다. 속히 전쟁을 멈춰주시고 영혼을 도둑질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적인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사회주의 사상에 갇힌 두 나라의 백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는 영혼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난민 위기 지역...관심과 기도 요청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난민 위기 지역으로 꼽힌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 지금도 난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 세계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됐다.

미션네트워크에 따르면, 크리스천 월드 아웃리치(CWO)의 그렉 요더(Greg Yoder) 대표는 “우리 사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르키나파소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야 할 때가 많다.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본 적이 없고,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약 10년 전부터 인접국 말리에서 부르키나파소로 들어왔고, 그 이후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부의 한 도시는 2년간 이슬람 무장세력의 봉쇄 아래에 있기도 했다. 민간인들은 이런 교전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부르키나파소에서 실형민 수가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

2023년 현재, 세계 테러 관련 사망자의 4분의 1이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참상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지난 8월, 동부의 한 마을에서 지하디스트들에 의해 몇 시간 만에 600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언론 보도, 정치적·외교적 개입의 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다.

부르키나파소의 위기 상황 속에서 CWO 사역팀이 운영하는 의료 클리닉과 직업 훈련 학교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더 대표는 “CWO가 운영하는 기회 제공 마을 프로그램(Village of Opportunity Program)에 참여하던 소녀들 중 일부가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아이들은 한 달이나 일찍 돌아왔다. 그러나 그렇게 도울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요더 대표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배고픈 상황에 그들의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며 세계 곳곳에서 이 상황을 보고 행동하도록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회 제공 마을’의 안전을 위해, 이동 진료소가 진행될 때 안전을 위협받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삼상 12:22-23)

하나님, 부르키나파소 정부군과 이슬람 무장단체의 교전과 테러로 인한 참상이 심각한 수준에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열방의 교회가 이 땅의 고통에 눈을 뜨게 하셔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 의의 복음을 들려주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했던 영혼들이 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동일하게 악을 행하던 자들도 죄에서 돌이켜 선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에콰도르, 극심한 가뭄·산불로 60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극심한 가뭄과 그에 따른 산불로 목살을 앓고 있는 에콰도르가 60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뉴스1이 19일 CNN을 인용해 전했다. 이네스 만자노 에콰도르 국가재난안전위원회 회장은 지난 18일 산불, 물 부족, 가뭄으로 인한 6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호르헤 카리요 에콰도르 재난관리장관은 전기 수요의 약 70%를 수력 발전으로 충당하는 에콰도르가 최근 약 120일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수위가 내려가 전력 부족까지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전기 공급 제한 시간을 하루 8시간에 14시간까지 연장했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건조한 기후에 17개의 산불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불 5개는 통제됐다. 아주아이와 로하 지역에서 1만 헥타르(약 경기도 면적)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아주아이 쿠엥카의 카하스 국립공원에서만 2만 8,000헥타르 면적 중 약 5,000헥타르가 소실됐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이사야 33:2)

하나님, 올해 초 범죄와의 전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에 산불까지 겹쳐 국가적 위기를 맞은 에콰도르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환난이 많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스리사 비를 내려 거친 화마를 잠잠케 하소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에콰도르에 주를 앙망하는 자들을 더욱 세워주십시오. 진리의 외침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르는 교회에 주의 구원과 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셔서 모두가 그 은혜 안에 거하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 인권위, 트랜스젠더 학생 요구 수용해 다양성 보장 정책 마련 권고 “물의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여고생이 남학생 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의 결정을 차별 행위라고 판결,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A 씨는 학교가 주관하는 2박 3일 수련회 참석 전에 담당 교사, 교감 등과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상담했다. 이에 학교 측이 학생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자 A 씨는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LGBT(엘지비티) 학생의 어려움을 반영해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처럼 인권위가 법적 성별이 여자인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성주류화정책을 강행,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한1서 1:7-8)

하나님, 여고생에게 남학생 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의 당연한 결정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여고생의 편을 들어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인권위 소식에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공교육 안에 깊이 뿌리내린 성혁명과 공권력으로 다음세대를 병들게 하는 악한 세력을 꾸짖어 주시고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다음세대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귄다 있고 진리가 늘 이들 속에 거하여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멕시코 원주민 보호법 개정안, 기독교인 박해 심화시켜



멕시코가 토착 사회에서 지역의 관행과 전통을 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토착민 권리의 승리라며 환영했으나, 한편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오히려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9월 멕시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동물의 희생과 같은 관행이 포함된 전통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 리즈 코르테스(Liz Cortés)는 “많은 토착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관습은 지역사회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독교인은 종종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외부인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법률은 지역 당국에 이러한 전통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본질적으로 박해를 합법화해 기독교인을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시킨다”고 우려했다.

히스패닉 이전의 신앙과 가톨릭 전통을 결합한 종교적 관행은 멕시코 전역의 토착 지역사회에서 종종 공동체적 의무로 간주되며, 이에 동참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에 기부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정기적으로 적대감에 직면해 왔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기독교인은 종종 벌금, 투옥 및 추방을 당했다.

이에 대해 코르테스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물과 전기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차단당한다. 그들의 자녀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이 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로 인해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인권운동가들은 새로운 개혁안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강화할 뿐 아니라 토착사회가 외부 감독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하며, 이로 인해 종교적 표현과 신념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호를 호소하는 능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새로운 법률은 또 오픈도어와 같은 인권단체가 지역 기독교인을 옹호하는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과거 인권단체는 토착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종교 협회 및 공공 예배에 관한 법률에 의존해 왔다. 오픈도어는 “정부는 문화 보존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희생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신명기 30:15-16)

하나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는 멕시코에서 토착 사회의 전통과 신앙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돼 예배에 대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이 땅을 의탁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이들의 공격이 합리화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진리를 대적하며 오랜 정령숭배와 혼합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교회를 통해 생명과 복을 나타내사 혼미한 영혼에 사망과 화를 입히는 사탄의 간계가 망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예수 생명을 번성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미국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서 사용할 성경 500권 구입

미국 오클라호마주가 공립학교의 미국 정치와 역사를 교육하기 위한 AP(Advanced Placement) 정부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500권 이상의 성경을 구입했다고 18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 성경들은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자원으로서 활용되며, 성경과 함께 독립선언문, 헌법 등 미국 건국 문서들을 포함한다. 오클라호마주 교육감 라이언 월터스(Ryan Walters)는 성경이 미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터스 교육감은 종교적 자유와 애국심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하고 공립학교에서의 기도 권리를 보장하는 지침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일부 학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월터스는 성경 구절 제거를 거부하며, 학교 내 종교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혜는 유산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굵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전도서 7:11-13)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떠났던 이 땅의 공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일이 미국 교육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죄로 인한 영혼의 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들의 눈을 밝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다음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가 이 나라의 건국 역사와 함께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전해 받는 유산과 같은 아름다운 지혜를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 아이티, 무장 갱단 폭력 악화·구호단체 활동 중단

아이티의 갱단 폭력 사태가 악화하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거리에서 최소 25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시신들은 불타는 타이어 더미 주변에서 주민과 언론에 의해 확인됐으며, 대부분 갱단원으로 추정된다.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경찰과 갱단원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주민들도 경찰과 협력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마체테 칼과 망치를 들고 갱단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갱단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경없는의사회(MSF)도 아이티 내 폭력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며 포르토프랭스에서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구호 차량이 반복적으로 공격받고 직원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지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언 18:2-3,10)

하나님, 아이티 내 폭력이 통제 수준을 넘어 날로 더해가 구호단체 활동마저 중단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국제사회의 개입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이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께서 악한 자들의 포악과 위협을 막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 되신 여호와와 이름으로 구하오니 어둡고 혼탁한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주셔서 칼과 망치를 들었던 두 손이 주를 향한 예배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티와 늘 함께하시라 주께서 주신 소망으로 복을 얻게 하소서.